

#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과태료 겨우 200만원

### 환경단체, 솜방망이 처벌 비난 환경 관련법 개정 처벌 강화해야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 대기업들의 국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삼류' 환경·안전 행태에도 당국의 제재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94조)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 3곳에 대해서도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관련 법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고 면허 취소는 2차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당장,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게 고작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게 알려지면 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임에도, '처벌'이나 '제재'로 보이지 않는 데다 '1회 위반' 적용도 당국의 소홀한 감시 감독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한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액수 등 행정제재 수위가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 현행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작이나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별도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29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에 문을 연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경진 국회의원과 문인 북구청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지역 주민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개소한 북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저소득·저신용자 자금대출, 채무조정, 자활·일자리 연계 등의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성평등 실현, 전남 행복시대 선포식 전남여성가족재단 개원 10주년

전남의 여성가족 전문기관으로서 '여성의 힘! 세상의 빛!'이라는 모토로 개원한 전남여성가족재단(전 전남여성플라자)이 29일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이날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김한중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여성기관·단체·협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함께 '성평등 전남실현, 전남 행복시대'를 향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 이어 시·군 성평등 정책 환경 분석포럼도 가졌다.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장은 '전남의 성평등 현황과 지역별 비교'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다양한 취업직종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전남의 성평등정책 환경과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대상별 성인지 교육 실시를 통한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토론에는 전남도의회 이혜자 기획행정위원장,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남 성평등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10년 동안 전남 여성가족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전남여성가족재단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며 "10년의 역사 위에서 전남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시민서포터즈 소양 교육

### 심폐소생술 등 26차례 교육

광주시는 29일 시청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서포터즈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강사들이 수영대회 개요, 경기일정, 서포터즈의 역할, 국제에티켓, 응원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시는 시민서포터즈가 민간외교 사절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18명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 5월 17일까지 26차례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민서포터즈 1만2000명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

월 28일부터 1개월 동안 모집했다.

시민서포터즈는 수영대회 홍보,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관광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전문 자원봉사자 400여명도 모집이 완료돼 6월 중 직무·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단 의전, 경기 진행, 관광 안내, 시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장은 "광주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민간외교 사절이자 홍보대사인 시민서포터즈가 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 교통혼잡 특별대책단 운영

### 2호선 공사계획·백운광장 공사 논의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하수관거 공사, 아파트 시공 등이 한꺼번에 진행돼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지적(광주일보 2월 14일자)과 관련 광주시가 특별대책단을 운영한다.

특히 일부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았다.

광주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특별대책단 첫 회의를 갖고 교통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괄위원회와 현장 대응방안을 마련할 실무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단에는 교통건설국·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시민안전실 등 시 관련 부서와 시의회, 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호선 공사계획과 광주시 주요 관문인 백운광장 일대의 공사시기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2호선 건설 공사로 인해 도시 곳곳에 교통혼잡이 불가피하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현장에 교통

전문가를 상주시켜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난해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주월동 일대의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반면, 대남대로 웨슬리신협 앞의 하수관로 하부에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사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도시철도 비중첩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중첩 구간은 가급적 동시 시행토록 관계 부서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백운광장의 경우 고가 철거시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거와 지하차도, 2호선 건설은 단계별로 상호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주변 도로와 교차로의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겠지만 시민불편은 불가피하다"며 "시민들께서도 광주의 대중교통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공사인 만큼 교통질서 준수와 대중교통 이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송정공원 민간사업자 없어...市, 사업 추진 검토

공원일몰제에 따른 광주 송정공원을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끝내 찾지 못해 광주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제안서를 낸 사업자는 1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진행하려면 시민심사단 모집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두 번째 공모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광주시 재정투입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내년 7월까지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상 민간사업

자 제공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광산구 소촌동 일대 송정공원은 공원 53만6274㎡, 녹지 44만9037㎡, 비 공원시설 5만637㎡ 규모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으로 송정공원을 포함한 6개 공원의 공모를 냈으나 송정공원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 제공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영암군

7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氣의 고장 영암의 진한 맛

월출산 국립공원

맛과 정이 듬뿍 담긴 건강한 영암 농특산물

달마지쌀골드

매력한우

황토고구마

대봉감